

치주치료의 이모저모 -큐렛인가 메스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신 승 윤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
이 학 철 / 서울A치과의원

오늘날 치과 임상에서 임플란트가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치아를 보존하기 위한 치료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임상가는 매일 체어사이드에서 만나는 치주 질환 환자에게 비외과적 접근인 ‘큐렛’을 먼저 적용할지, 아니면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메스’를 들어 외과적 술기를 시행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비외과적 치료의 실전 팁부터 개원가에서 꼭 필요한 핵심 치주수술 술기까지 한자리에서 다루고자 한다.

‘메스’ 파트는 개원의가 임상 현장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하며, 활용도가 높은 세 가지 핵심 외과적 술기를 선정하여 다룬다. 세 가지 외과적 술기는 치주낭 감소를 위한 치은 절제술(Gingivectomy), 적절한 보철적 공간 확보 및 심미적 개선을 위한 치관확장술(CLP),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치은판막박리술(Open flap curettage 혹은 distal wedge procedure)이다.

‘큐렛’ 파트는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비외과적 치주치료의 에센스를 다룬다. 수술적 처치 만큼이나 중요한 비외과적 접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과 함께, 비외과적인 술식으로 어떻게 안정화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전 팁을 제공한다. 비외과적 치료의 한계와 가능성을 명확히 짚어줌으로써, 술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치료에 임할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강연은 대학과 개원가의 시각에서 ‘메스와 큐렛’ 중 무엇을 먼저 선택하든 환자와 술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치주치료의 해법을 찾고자 한다.

학력 및 경력

신승윤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JPIS) 전(前) 편집장
- * 서울대학교병원 치과병원 치주과 수료
- * 대한치주과학회 총무이사
- * 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교수

이학철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수련
-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외래교수
- * 현, 서울A치과 원장